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0월(제6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동아시아 한중일 3국 간의 관계를 예술로 더욱 돈독히!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 오이타현**



하기우다(萩生田) 전 문부과학성 장관으로부터  
선정증서를 수여받는 히로세(広瀬) 오이타현 지사

오이타현이 지난 8월 30일 진행된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에서 일본을 대표하여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도시’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東アジア文化都市)’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5월) 합의사항의 하나로 2014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도시를 1개씩 선정하여 1년간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개최 도시로는 일본 오이타현 외에 한국은 경주시(慶州市), 중국은 지난시(濟南市)와 원저우시(溫州市)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즐겨보세요!**



〈오이타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리나요?〉



① Takashi Kubo ©Mixed Bathing World Executive Committee  
② ©DRUM TAO ③ (C)Rikimaru Hotta

개/폐막행사, 핵심 사업(문화예술 관련), 개최도시 간 교류사업, 베틀 아르헤리치 음악제, 현대예술제 ‘훈육온천세계’, DRUM TAO 공연 등 개최 예정

문화청 지정 일본 유산 야마케이(耶馬溪)를 즐기다

**2021 야바하쿠 개최 구스정 玖珠町**

오이타현 나카쓰시와 구스정에 위치한 ‘야마케이(耶馬溪)’는 용암대지의 침식에 의해 생성된 기암 계곡으로 돌기둥 절벽, 암굴(岩窟), 폭포, 거석(巨石)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신비로운 지형과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풍경 덕에 예로부터 전설 속의 장소이자 기도 장소, 그리고 화가들의 동경의 땅으로 불려왔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천 년 전부터 만들어온 석불, 돌다리, 동굴, 정원 등이 다이쇼(大正) 시대에 탐방로로 연결되며 야마케이는 ‘한 폭의 산수화 두루마리 그림 같은 경승지’로서 오늘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잇따라 절경이 펼쳐지는 야마케이를 하늘에서, 계곡 아래에서, 그리고 ‘2021 야바하쿠’를 통해 더욱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야바하쿠(야ばは<)란?〉

‘야마케이 유람’을 주제로 야마케이를 더욱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공식 사이트〉

‘2021 야바하쿠’는 오는 10월 31일(일)까지 개최되며, 자세한 사항은 ‘야바하쿠’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일본어 사이트, 상단 QR코드).

〈야바하쿠 in 구스정〉



▷ 구스 농촌 체험(민박 ‘사카모토 마을’)

: 평화로운 농촌에 머물며 농촌의 자연을 느끼고 요리도 체험해보세요.

▷ 기리카부산(伐株山) 힐링의 숲 :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겨보세요.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0월(제6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특집>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오이타현 선정 기념

## 우호도시 우사시 - 경주시

여러분은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아시나요?  
‘동아시아 문화도시(東アジア文化都市)’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5월) 합의사항의 하나로 ‘한중일 3국 간의 동아시아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한중일 1개 도시를 선정하여 다채로운 문화 교류를 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천주시/요코하마시를 시작으로 각 나라에서는 매년 다양한 도시들이 선정되었는데요,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일본을 대표하여 오이타현이 현 단위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한국은 경주시, 중국은 윈저우시/지난시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경주시’가 우사시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유루카라 그라프리카 웹사이트 / 경주시 홈페이지

(왼쪽) 우사시 캐릭터 ‘우사카라군’  
(오른쪽) 경주시 캐릭터 ‘관아와 금이’

‘가라아게 전문점 발상지’인 우사시와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시. 언뜻 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도시는 사실 1992년부터 ‘우호도시’로서 다양한 교류를 펼쳐오며 아주 오래된 교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도시의 교류 계기는 이렇습니다. 지난 1977년 우사시 부(別府, びゅう) 유적에서 한 동탁(銅鐸, 동종 방울)이 발견됐는데, 이 동탁의 모양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는 동탁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자세히 보니, 경주 외동읍 입실리에서 출토된 동탁

과 모양이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이는 고대부터 경주시와 우사시 지역이 문화교류를 해 왔음을 의미하기에, 두 도시는 고대부터 이어진 교류를 현대에 부활시켜 지역사회 진흥 및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1992년 7월 3일 우호 결연을 체결하였답니다.

일본에서 딱 하나밖에 출토되지 않은 이 조선식 동탁은 ‘뷰 유적 조선식 소형 동탁’이라 이름이 지어졌고, 지금은 우사시에 있는 오이타현립 역사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도시는 우호 결연을 맺은 기념으로 지난 1996년 우사시 종합운동장에 동탁 모양 기념비를 세웠으며, 그 이후로도 ‘한일 국제미술교류전’ 개최,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 경주 벚꽃 마라톤에 우사시 선수 출전, 우사 아지무(安心院) 와인 마쓰리에 경주시 홍보 부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꾸준히 교류를 해왔습니다. 교류 20주년을 맞은 지난 2012년에는 우사시에 경주시와 우사시의 시목(市木)을 심고, 경주시에 교류 기념비와 조형물을 설치하며 돈독한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답니다.

다가올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열리는 해는 우사시와 경주시의 우호 협정 체결 3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자체 단위의 교류에서 나아가 한일 양국의 교류를 위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 (pu-no314@pref.io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0월(제6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압도적으로 웅장한 하지만 총본궁과 그 의미 宇佐市

## 일본 신도 문화와 우사 신궁 우사시

오이타현 북부에 위치한 우사시(宇佐市)는 양쪽으로 각각 나카쓰시와 분고타카다시를 끼고 있다. 오이타시에서 특급열차 소닉으로 40분이면 갈 수 있는 이곳에는 <일본 전역에 있는 하치만구 신사의 총본궁이자 신불습합의 발상지로 알려진 ‘우사신궁(宇佐神宮)’이 있다. 오잉? 분명히 한국어이고, 설명이라고 해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 매우 정상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신사와 그에 관련된 문화를 전혀 모르는 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한 다음 우사신궁의 의의, 관람 포인트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일본 신도 문화에 대해

#### ① 신도(神道, しんとう)

‘신도’란 일본의 토착 종교로 ‘가미(神)’라고 부르는 신은 창조신이 아닌 조상신을 일컫는다.

예로부터 일본인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산으로 가서 정화된 후, 조상신이 되어 다시 사람이 사는 마을에 내려와 그 가족과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이러한 씨족 신(氏神, うじがみ)를 중심으로 신사가 발전하였고, 현대 일본 가정집에 모셔져 있는 불단에 불상이 아닌 조상의 위패나 사진이 모셔진 경우도 많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메이지 천황, 전사자 등 실존 인물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때문)

#### ② 신사(神社, じんじや)

신사란 신도의 신을 모시는 종교 시설로 불교의 절, 가톨릭의 성당, 개신교의 교회와 같은 개념이다.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신사를 포함하면 일본 국내에 약 20~30만 곳의 신사가 있다고 추정되며, 신을 모시기 위한 시설이므로 포교 활동은 하지 않는다.

초기의 신사는 숲이나 동굴, 바위 등 특정한 장소를 신성한 장소로 규정한 후 신을 부르는 형태였으나, 불교가 전래되며 지금의 신사처럼 건물을 짓고 사람이 참배하러 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천황과 관련된 신을 모시면 ‘신궁(神宮)’이라 하고, 그 지역의 거점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크면 ‘대사(大社)’라고 한다.

#### ③ 도리이(鳥居, とりい)

도리이는 신사의 입구로 신의 영역과 일반 세계를 구별하는 문이다. 석재, 콘크리트, 나무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며 도리이의 크기는 신사의 규모와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우사신궁(宇佐神宮) 개요

일본 3대 신궁 중 하나로 725년에 지어졌다. 모시는 신은 ‘하치만신’으로 전국에 있는 하치만신을 모시는 44,000여 개의 신사의 총본사(본부)이다. 우사신궁 경내에 있는 본전(本殿) 건물 상궁과 하궁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신사 참배 방법과 달리 ‘二礼四拍手一礼(절2번 박수4번 절1번)’인 점이 특징이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0월(제6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일본에서 신과 부처님이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 ○ 하치만신(八幡神)

일본의 제15대 천황이자 최초의 실존 천황으로 알려진 ‘오진 천황(応神)’의 신령으로 일본 황실의 조상신으로서 섬겨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치만 삼신(三神)’이라 하여 ‘오진 천황’을 주(主)신으로, 오진 천황의 어머니 ‘진구 황후(神功皇后)’, ‘히메노카미(比売神,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오진 천황의 황후/히미코(일본 고대 야마타이국을 다스렸던 여왕)/아마테라스(신도 최고의 신) 등으로 추정’)와 함께 제사를 지낸다.

## ○ 신불습합(神仏習合)

동아시아에 불교가 전래되던 시기에 일본에서도 신도와 불교가 섞이게 되는데 이를 ‘신불습합’이라고 한다.

신불습합은 나라 시대(奈良時代, 710~794) 무렵, 나라(奈良)에 위치한 도다이지(東大寺) 대불을 건설할 때, 하치만신이 대불 제작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그 보답으로 일본 조정의 하치만신을 호국과 불교 수호의 신으로써 모시기게 된 것을 계기로 생겨난 개념이다. 이때 하치만신은 ‘하치만 대보살’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는 일본 역사상 최초로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은 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사신궁에서는 이러한 하치만신을 모시기 때문에 ‘신불습합의 발상지’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오이타역에서 특급열차 소닉을 타고 40분 정도 가면 우사역(宇佐駅)에 도착한다. 역을 등지고 좌측에 있는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우사신궁에 갈 수 있으며(宇佐八幡 하차), 정류장에 있는 버스 시간표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四日市 방면).

혹시 미리 계획을 짜려고 하는 이들에게 팁을 주자면, 안타깝게도 아직 구글맵에 시내버스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구글맵으로는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 대신 일본어를 할 수 있다면 일본어 길 안내 사이트 ‘NAVITIME’ 에서 우사역에서 우사신궁까지 가는 경로를 직접 검색해 보자. 만약 일본어가 어렵다면 역 앞에 있는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하며(약 8분 소요), 3.8km나 떨어져 있어 걸어갈 수 없는 거리이므로 유의하자.



우사신궁은 기본적으로 늘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라 길을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 우사신궁 근처로 형성돼있는 상점가를 따라 걷다 보면 커다란 도리이가 보이는데,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0월(제6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이를 지나 다리를 건너가면 우측에 신라 시대 범종이 보관돼있는 ‘우사신궁 보물관(宇佐神宮宝物館)’이 있다(유료 입장).

넓은 원시림에 둘러싸인 우사신궁은 상궁 > 하궁 순서로 둘러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리이 두 개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 왼쪽이 상궁, 오른쪽이 하궁으로 이어지는 도리이이며, 상궁으로 가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궁으로 갈 수 있으니 먼저 상궁으로 가보자. 언덕을 오르기 힘든 분들을 위한 모노레일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우사신궁 홈페이지를 확인해보기 바란다.



상궁은 강렬한 오렌지빛 건물로 웅장함을 느낄 수 있으며 참배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왼쪽부터 하치만신을 모신 ‘이치노고텐(一之御殿)’, 히메노카미를 모신 ‘니노고텐(二之御殿)’, 진구황후를 모신 ‘산노고텐(三之御殿)’으로, 세 신 모두 상궁과 하궁에 모셔져 있다. 본전 동쪽에 있는 높이 30m의 고목은 무려 800년이나 된 나무라고 하니 한번 본 후, 왔던 길을 다시 돌아 나와 하궁으로

가보자. 숲 속의 돌계단을 내려가 작은 다리를 지나면 상궁보다는 규모가 작은 하궁이 보인다. 간단하게 둘러보고 이어진 길을 따라 나오면 다시 두 개의 도리이가 있던 곳에 오게 된다.

지금까지 우사신궁 경내와 관람 순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해 보았는데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우사신궁에는 훨씬 많은 매력 포인트가 있다.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상궁으로 가는 돌계단 길에 ‘부부돌’이라 불리는 삼각형 돌이 있는데 부부나 커플이 손을 잡고 각각 그 돌을 밟으면 행복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며(덧붙여 솔로는 혼자서 돌 두개를 밟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고 한다), 지붕이 달린 다리 ‘구레하시(呉橋)’ 근처에 있는 아와시마샤(粟島社)의 석조 지장 보살에게 아무도 없을 때 소원을 빌면 평생 딱 한 번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도 있다.

일본 3대 신궁이라고 불리는 만큼 그에 맞는 위용이 느껴졌으며, 근처에 산다면 종종 산책하고 싶을 정도로 자연이 가득해서 걷다 보면 힐링되는 기분도 들었다. 또한, 내가 방문한 날은 평일인데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적었기에 고즈넉한 신궁의 분위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여러분도 우사신궁을 방문하면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둘러보며 우사신궁의 매력을 만끽해보기를 바란다.



## 우사신궁 (宇佐神宮, Usa Jingu Shrine)

- 주소 : 宇佐市南宇佐2859(〒872-0102)
- 문의전화 : 0978-37-0001(일본어 대응)
- 운영시간 : (4~9월) 05:30~19:00  
(10~3월) 06:00~19:00(정초 제외)
- 입장료 : 무료 / 주차요금 : 400엔(12시간)
- 우사신궁 보물관 입장료 : 300엔(09:00~16:00)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io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10월(제64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9화

요즘 오이타 사투리를 연습하고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유튜브 영상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사투리를  
배워야 완전히 적응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전학온 노지(15)



\*시코쿠 보통 교류원이 되면  
기초자치단체로 발령받기 때문에  
지방 사투리를 접하기 쉬워지지만,



내가 일하는 곳은 직원들이  
비교적 공적인 자리에 나설 일이 많은  
도청(현청)인데다



규?

사투리를 쓰는분들조차  
나(외국인)를 배려해주셔서  
평소에 사투리를 들을 일이 1도 없다...



심지어 오이타 현민과 만나는 수업은  
한국어로 소통하니 더더욱 들을 일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오늘도 두 귀를 활짝 열고 간간이  
들려오는 사투리를 캐치하려 노력하는 중이다.



평소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고있어요!